

15세이하 심질환 환아의 술후 사망원인 분석

박종호, 이정렬, 김용진, 노준랑, 서정필.

서울대학병원 소아흉부외과에서는 1985년 소아병원 개원이래 1992년 까지 15세이하의 심질환 환아 4324명을 치료하였다. 이를 소군별로 분석 하면 비청색증 개심술환아 1965명, 청색증 개심술환아 1167명, 재개심술 환아 120명, 후천성 판막질환 환아 50명, 그리고 비개심술환아 1022명 이었다.

이들중 병원사망례와 만기사망례는 396명(9.2%)이었으며, 소군별로 사망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청색증 개심술환아 4.3%(85/1965), 청색증 개심술환아 19.8%(231/1167), 재개심술환아 10.8%(13/120), 후천성 판막질환환아 10%(5/50), 비개심술환아 6.1%(62/1022). 사망환자 396명 중에 의무기록 및 사망희의기록의 추적이 가능하였던 경우는 259명 (65.4%)이었다.

서울대학병원 소아흉부외과에서는 추적이 가능하였던 259명을 대상으로 각 질환별 수술경험과 사망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심질환 환아의 치료계획에 참고가 되고자 하였다.